



베이비타임

BabyTime, Confident Parenting.

건강한 아기를 위한 행복한 부모의 선택

편리하고 스마트한 육아 기록 앱

베이비타임



베이비타임은 건강한 아기와 행복한 부모를 위한 육아 기록 앱입니다. 수유, 배변, 수면 등 기본적인 아기의 활동 패턴을 스마트폰에 쉽게 기록할 수 있으며, 일일 기록을 그래프로 변환하여 아기의 생활 패턴과 성장 발달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육아 수첩 등에 수기로 적어오던 육아 일기를 모바일로 가져옴으로써 도식화, 통계, 외부 공유, 영구 보존 등의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이비타임은 출시 이후 지금까지 별도의 마케팅 없이 ‘안드로이드 육아 앱 카테고리 1위 달성’, ‘40만 건이 넘는 누적 다운로드 기록’ 등 사용자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향후 베이비타임은 영유아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한 육아 환경 조성 및 아기와 양육자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백일 정도까지 종이에 수유일지 쓰다가
늦게 이 어플을 설치했는데 왜 진작 몰랐나 아쉽네요 진짜 거의 모든게 다 딱 원하던 바입니다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기능 엑셀로 저장되는 기능 등 너무 맘에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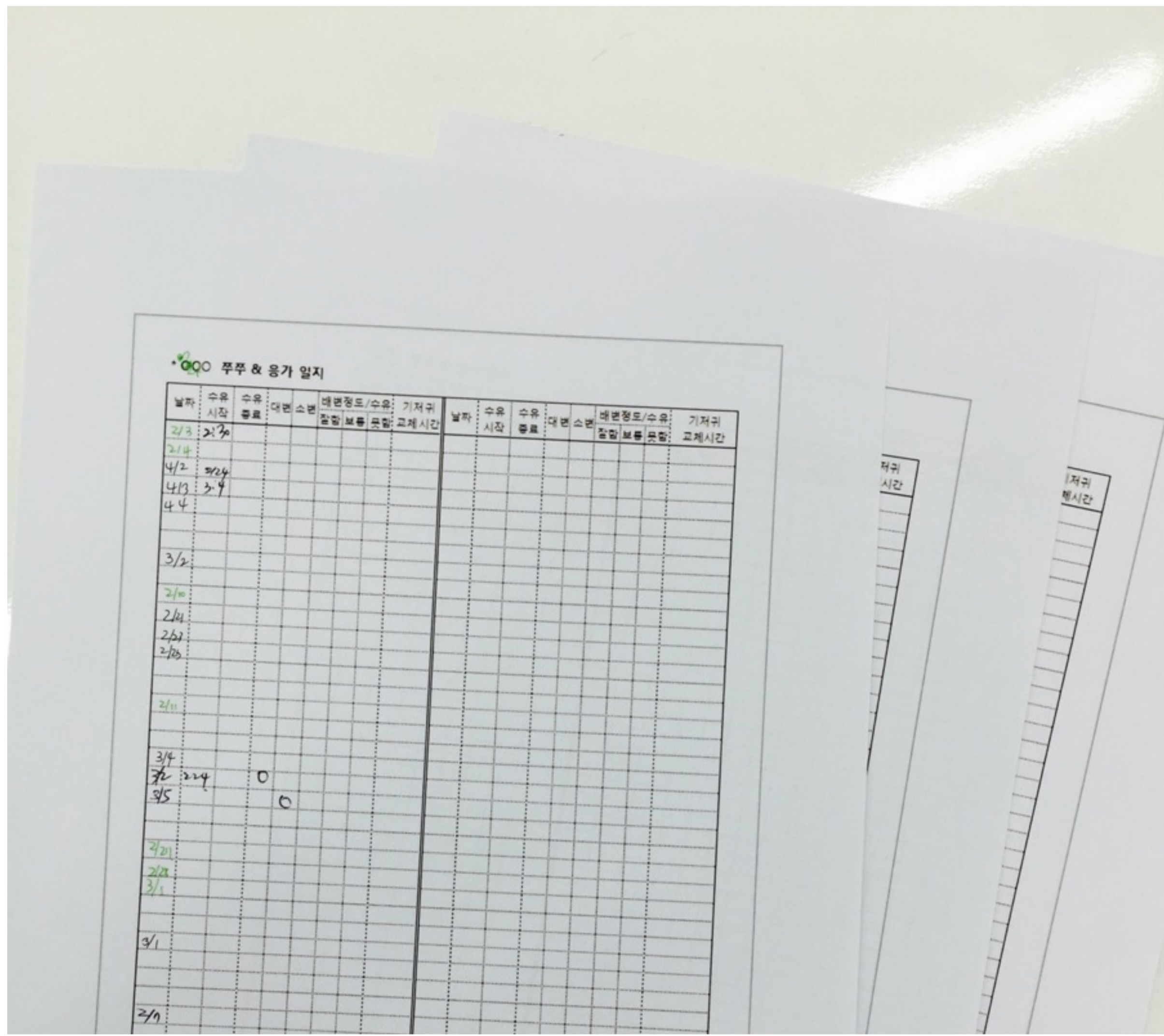
Google Play Store 양*희님 리뷰 ★★★★★

“좋아요 신생아때부터 쪽 쓰고있어요 업데이트도 잘 되고 오류도 없고
무엇보다 실제로 쓰는 기능 위주로 돼 있다 보니 편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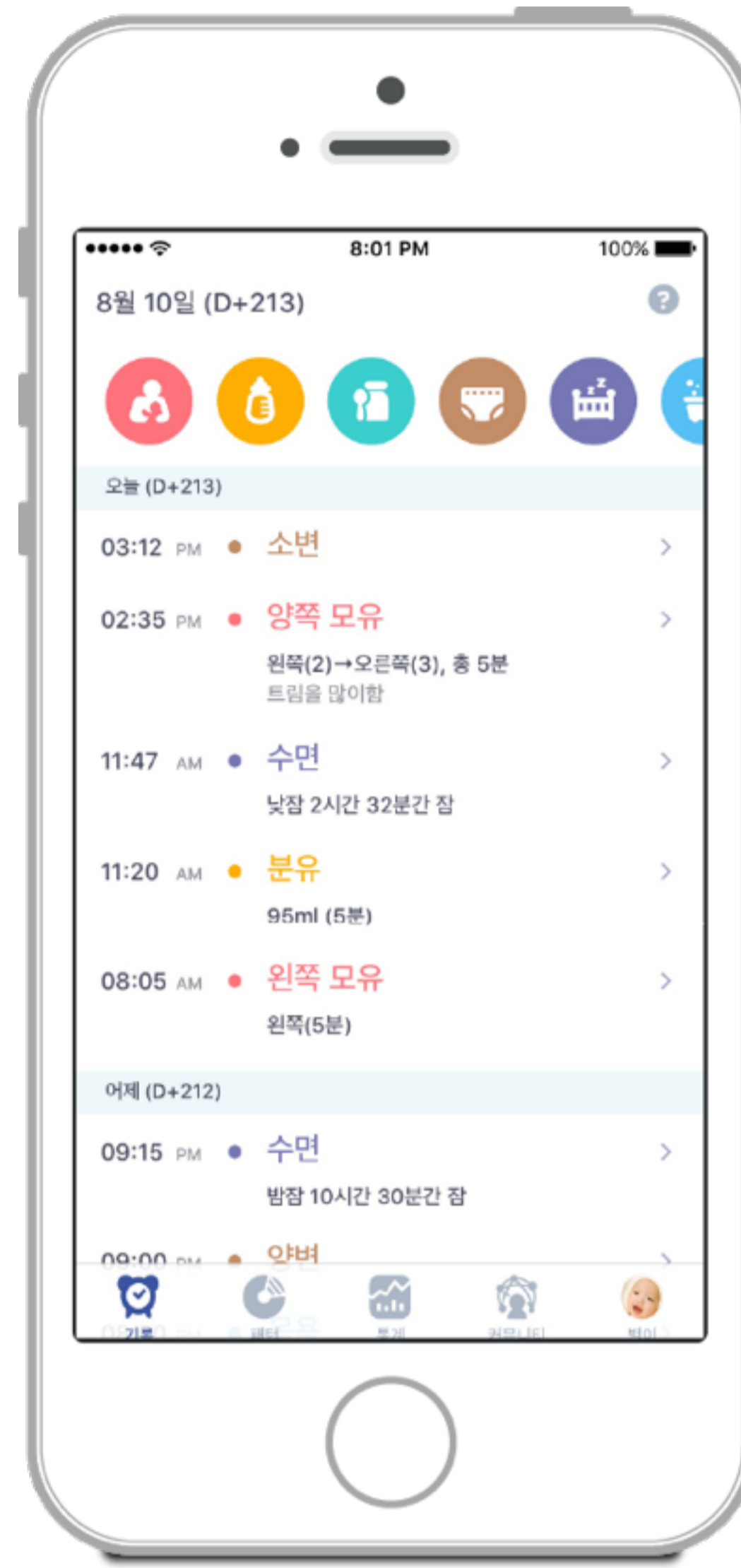
Google Play Store 강*수님 리뷰 ★★★★★

1. 모바일 디지털 육아의 첫 걸음

매번 종이와 펜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스마트폰으로 대체했습니다. 베이비타임은 늘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더 쉬운 기록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쉽고 직관적인 UX 디자인을 통해 **수기 기록의 불편함과 부정확성을 개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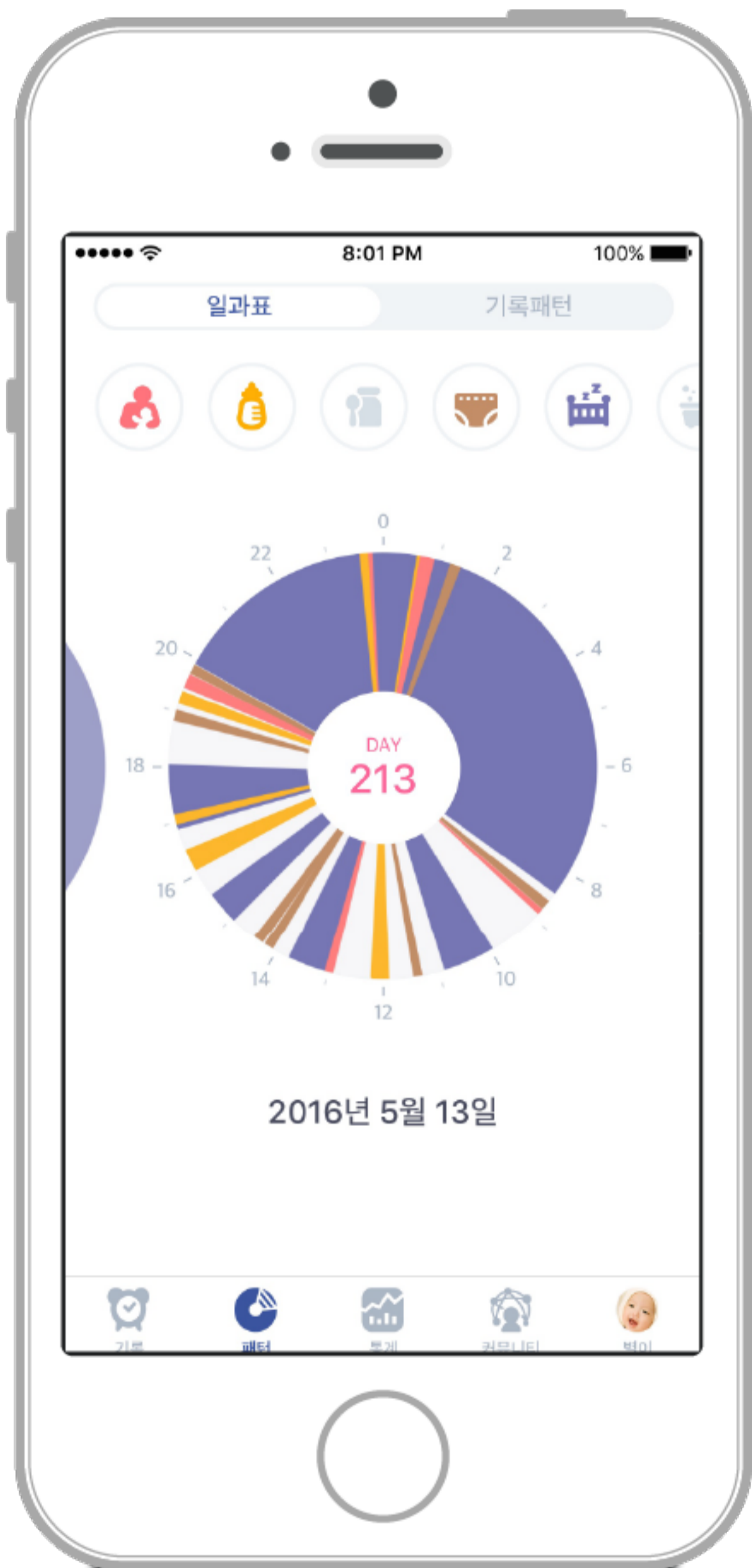


<수기 육아 기록지>



<베이비타임>

2. 내 아기 맞춤형 분석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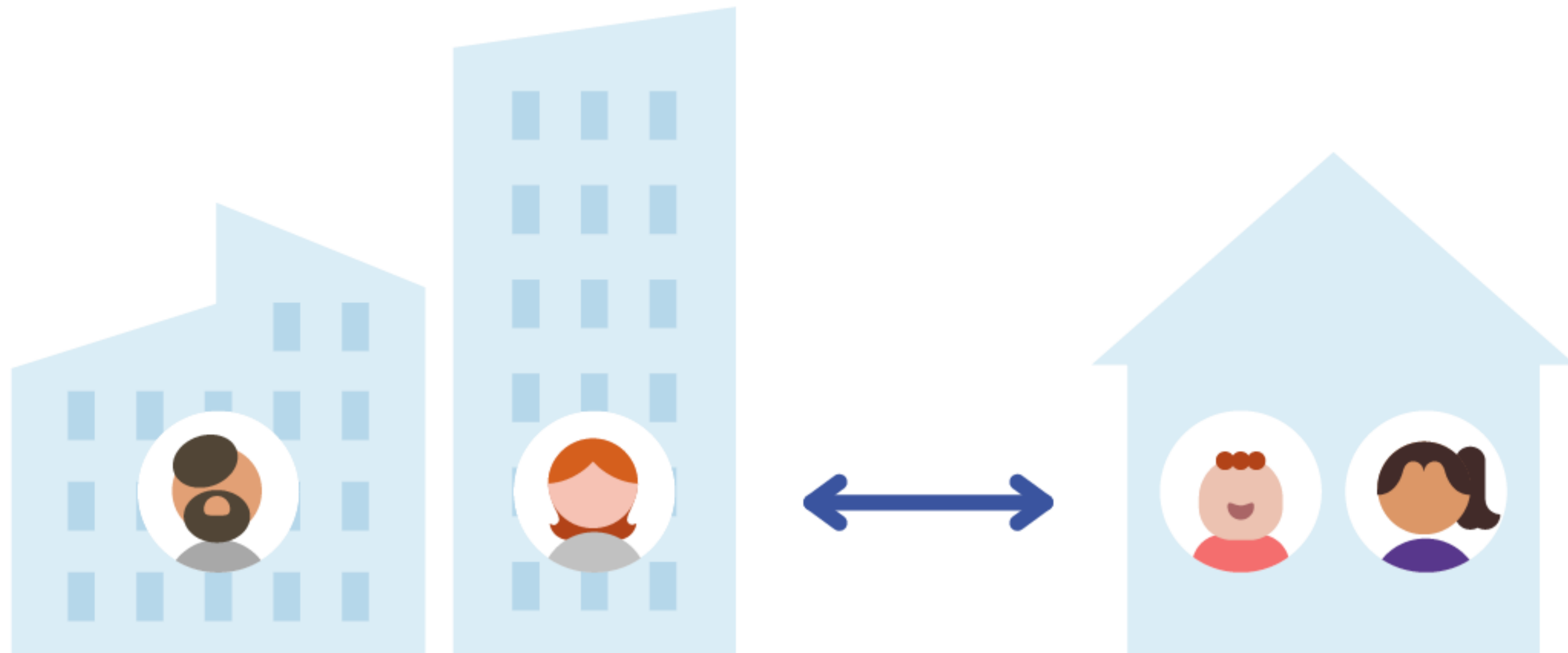
육아 일기는 기록하는 것만큼 과거의 기록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 발달 상황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아기의 건강과 직결 되기 때문입니다.

베이비타임은 생활 패턴 기록을 내 아기 **맞춤형 그래프로 변환**해 드립니다. 간단한 조작만으로 일간, 주간, 월간 비교 그래프 형성은 물론 키와 몸무게의 성장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 등을 조기에 찾아 낼 수 있습니다.

3.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공유 기능

조부모님, 베이비시터, 아빠, 엄마 등 다수가 함께 육아를 하는 경우에도 아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각자의 스마트폰에 베이비타임 앱만 설치하면 아기의 하루 일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바뀌어도 아기의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육아 기록입니다. 자신의 증상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기들의 경우 수면, 수유, 배변 활동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 방문 시 베이비타임을 사용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또래 아이들과 다이어리 공유 기능

내 아기와 같은 날 태어난 아이들과 다이어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리 공유는 주 사용자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신생아임을 고려해 개월 수나 주차가 아닌 같은 출산 일별로 공유됩니다. 또래 아이를 키우는 다른 엄마들과 육아 일기를 공유하며 다양한 육아 방식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감대 및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여 양육자의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5. 내 아기의 소중한 기록을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새로 구입할 때에도 데이터는 베이비타임의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어떤 스마트폰에서든 베이비타임 앱 설치 후 로그인하면 기록해 둔 나만의 육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록

기본적으로 수면, 배변, 수유와 같은 아기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활동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각 활동의 주기와 소요 시간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육아 경험이 없는 양육자에게 지난 육아 습관을 평가하고 앞으로 육아 방식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아기의 행동을 미리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근 이와 같은 데이터 기반 육아(Data-driven parent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다수의 병원과 산후조리시설 등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1. 규칙적인 생활패턴이 건강한 아기를 만든다

신생아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유, 배변, 수면 활동을 반복합니다. 자라면서 점차 성인의 생활 패턴과 유사해지는데, 부모의 육아 방식에 따라 시일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기의 건강과 직결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교육을 위해 육아 기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기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아기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아기는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건강상의 이상 징후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2. 아기의 행동을 예측 및 준비 한다

아기의 경우 성인에 비해 일일 활동이 매우 단순합니다. 주요 활동 요소인 배변, 수유, 수면의 패턴만 파악해도 아기가 우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또는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한 시간에 공급함으로써 울음, 짜증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양육자에게 정서적 물리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

양육자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은 육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육아 기록을 통해 아기의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기의 건강은 물론 양육자에게도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이전 세대와 다른 육아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초보 엄마들의 경우 높은 불안 정서를 보일 수 있는데, 내 아기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육아 방식을 통해 합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플러

세상을 간단하게 만드는 사람들

simfler

심플러(Simfler)는 '세상을 간단하게(Simple) 만드는 가족친화적인(Family-Friendly) 기업입니다. 2015년에 법인 설립 이후로 LG전자 출신의 CEO와 창업진이 주축이 되어 빠르고 강건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플러가 출시한 베이비타임(BabyTime)은 초보 부모의 육아 걱정을 덜어주는 1등 육아앱으로서, 투자 유치 및 TIPS 선정을 통해 기술과 사업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연혁

2015.06 심플러 설립

2015.07 더벤처스 투자

2016.09 <베이비타임> iOS 앱 출시

홈페이지

<http://www.simfler.com/>